

191014 25차 단운위 속기록

19:25 개회

참석: 회 봐 한음 일치 불꽃 시 꼼 한길

회: 수정된 안건이 있다. 논의안건 4번에서 오늘 저녁 5시 정도에 연대 성명 수정안을 보내주셔서, 그 입장문 수정이 이루어짐. 그리고 또 논의안건 7, 8번이 추가됨. 나머지는 그냥 똑같습니다. 보고안건 1번은 전차 사회대 운영위 보고. 2번은 전차 총운위 보고, 어제 진행됨. 뭔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1번에 대해 임시 전대를 소집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음. 그런데 일정도 조사를 해봐야 하고, 11월 12월이 소집이 원활한 시기를 아니라서 앞으로 공지를 잘 읽고 응답해주시면 좋을 듯.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안건 2번하고 3번 사회대 학생회 보고도 별 게 없음. 혹시 앞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단위 보고로.

불꽃: 불꽃반은 오늘 방금 전에 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예산안과 사업을 인준 받았고, 이번에 경제학부 연석회의 관련해서 회의를 거침.

시: 시반은 크게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현재 사물함 증설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전된 바는 없음.

한길: 저희는 교개협 관련해서 추가 설문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할 예정이고, 간식사업 내일 5시로 바꿔었습니다. 참석자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저번 주에 마지막 반운위를 마쳤습니다.

19:28 비 출석

꼼: 저희는 베어 자켓 돈을 다 보내서 좀 있으면 올 듯. 20일까지 사진 받아서 게시판 디자인, 홈커밍 데이를 11월 29일로 연락을 돌리라고 했고, 연합 학술제 준비 중이어서 아마 10월 31일에 진행을 할 것.

한음: 저희 반은 10/10 반운위를 해서 선거일정 확정했고, 공고를 띄웠고요, 남은 사업은 10월 말 11월초 tf를 만들어서 해오름제라는 행사를 할 예정.

일치: 예산안과 집행부를 꾸리고 있고, 다음 주 중으로 간식사업 할 예정. 아직 확정은 안 남.

회: 단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시: 의사진행 발언. 논의 안건을 보니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부터 하는게 어떤지. 6, 1, 4, 2, 3, 5, 7, 8 순으로 하자.

회: 하나 말씀드릴게, 논의안건 1번이 발의 단위에서 내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하기 힘들다고 함. 이견 없으시면 6번부터 할게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여기 나온 분은 5명

인데 저번 주에 인준한 한만희님까지 포함해서 총 6명으로 구성할 예정. 읽고 질의 주시면 좋을 듯. 없으면 박수로 인준.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길기는 한데, 읽어봐주시면 좋을 듯. 내용은 위낙 상황이 다른 대학을 설명하려다 보니 길게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요청 받은 것은 앞에 적힌 하나 둘 셋 중에서 하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둘의 한신대학교 학내 달 수 있는 플랜카드를 보내달라는 것. 셋은 지지 성명인데, 연명문을 작성해서 보내주셔서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하면 될 듯. 일단은 읽는 시간을 가져보고, 36분까지 빨리 읽어볼게요.

논의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해주셔도 되는데, 질의에 대해 이 제안서 이외에 답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서. 논의를 나눠보자면 마지막의 연대 성명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도 될까요?

한길: 성명을 쓸지 말지를 논의하자는 것인지?

회: 그게 아니라 연명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한길: 찬성 발언을 남기고자 합니다. 우선 한신대학교 총장 관련 문제는 저도 이전에 간단히 봐서 잘은 아니지만 알고 있었는데, 저는 여기 성명문에 나온, 학생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기조에 동의를 하고 서울대학교도 경험적으로 총장 선출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을 만났기에 찬성의 뜻을 남김.

일치: 찬성 발언. 어제 처음 입장문이 나왔을 때는 반대를 할 생각이었음. 그것만 봤을 때는 총장 신임평가에 대한 내용도 부족했고 저도 이런 형태의 사후적 통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대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담기지 않아서 반대를 하려고 했음. 그런데 추가 설명을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 중요한 것은 신임평가를 하는지 여부도 있겠지만 약속을 거부하고 있다는 측면이 더 큰 것 같아서. 그리고 세부적 내용은 합의를 본 것이고, 이를 따르라는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 연서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함. 다만 우려점이 있다면 저는 이를 통해 이 상황을 처음 접하고 앞의 설명을 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입장문만을 통해 이해가 가능할지 우려는 됨.

한길: 그러면 조심스럽기는 한데, 요청사항 중에 지지 성명을 발송해도 된다고 하는데, 일치반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를 성명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제가 쓰는 것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성명을 작성하는 게 어떨지?

일치: 저는 다른 성명이 아니어도 충분히 지지 입장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함. 다른 거는 굳이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나 우려점은 앞의 설명이 부족하면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 제 생각에는 설명을 덧붙인다면 처음에 일치반에서도 강조 해주셨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사실상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사안의 맥락을, 앞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약간 수정을 더한 첨부를 하면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성명문을 저희가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여기에 더해 추가적 내용이 더 담길지는 회의적이기도 함.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 찬성 발언. 도의적으로 옳은 것은 필요조건이니 언급하지 않겠음. 그와 더불어서 제가 연대에 찬성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대학의 거버넌스에 있어서 학생의 통제권이 확장되는 것은 서울대의 문제이기도 함. 충분히 연대를 했을 때 또 편익이 있다고 생각. 또 감정적으로 찬성하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연대 성명이 지금까지의 성명과 다름. 지금까지는 쟁점을 서술하고 연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과소하다고 생각. 그런데 이는 한신대 얘기는 적고 나머지는 전국 대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내용상으로 훌륭한 듯. 두 번째 이유는 한신대 본부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해도 된다고 생각.

회: 혹시 성명에 대해 반대, 기타발언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성명과 추가적 설명을 박수로 인준하겠음.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것이 지지 플랜카드를 발송해달라는 것을 말씀해주심. 고려할 것이 문안을 어떻게 쓸 지랑, 플랑카드의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면 분담해 달라는 내용도 있음. 그것에 대해서도 처리를 논의하면 좋을 듯. 제 생각에, 문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제안을 해보고 거기서도 괜찮은 문안이라고 하면 컨펌하는 게 좋을 듯. 그래서 지금 문안을 확정하기보다는 소통을 하고 단운위 특방에서 사후에 컨펌하는 것으로. 두 번째로 플랜카드의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플랜카드의 규격을 몰라서 정확한 가격 예측은 불가능하나, 5만원 정도는 할 것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이를 분담할지 말지, 하게 되면 전액을 할지 일부를 할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 10만원을 외부 연대 지원금으로 예산안 편성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전액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전액이라는 것이 5만원을 의미, 최대 5만원을 말한 것.

회: 혹시 의견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없으시면 최대 5만원을 예산으로 잡고 덜 나올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것도 박수로 인준하고, 위에 보시면 지지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문자로 요청 할 때는 이 부분 언급이 없으셔서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4번 끝내고, 2번부터 다루면 될 듯. 2번은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이고, 읽어보시면 됨. 발제를 해주셔도 좋을 듯.

시: 그 전에 질문 발언. 현재 부학생회장님께서 속기 중인데 다른 분이 할 수는 없는지?

회: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시: 이게 2주 전에 발의를 요청했는데, 지난 주에 누락이 된 것 같고요. 선거참여제도 개정에 관한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일단 하나하나에 관한 설명이 부학생회장님께서 카톡으로 질문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조항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해달라고 해서 문서로 올렸지만, 안 읽으셨을 수도 있으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 제13항은, 아 그리고 패널은 선거 참여 개인 및 단체로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가 5분의 질의 시간을 보장 받으면 이 시간은 후보자의 답변 시간 동안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안, 기울여진 글자들이 이후 수정된 것. 최소 5분은 유의미하게 긴 시간은 되어야지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정한 것. 최대

는 시간을 정하려고 했는데, 제가 부학생회장님의 질문을 받고서도 몇 분이 좋을까를 생각해봤지만 10분이 좋다고 확신을 가질 수 없어서, 세칙에 명시를 하는 것은 꺼려져서 합의 하에 규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답변 시간이 차감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 저처럼 후보자가 말이 많은 경우 길어지면서 질문 시간이 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서 답변 시간 동안 차감되지 않게 함. 제45조 4항은 선거참여지원금의 사용처를 선관위에 보고하게 하는 조항. 선거 참여하면서 돈이 쓰이는 것이 좋으니, 물론 보고를 한다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 더 선거 참여를 하는 데 관련 있는 곳에 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45조 제7항에 선관위는 지원을 한다는 조항. 질문 우선권, 게시 공간 보장, 인쇄 지원 등. 또 게시 공간 보장. 사실 저희가 선거 패널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함. 더 깊게 해석하자면 나름 언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사람이 내는 목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 게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그런 공간을 규정하는 거는 너무 디테일하고, 생각해보니 그런 공간은 애초에 후보자에게 돌아감. 그 다음에 9항은 자원봉사자 제공 요청. 이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셨으니, 선관위 인력도 딸리니 급하다 싶을 때 연락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 특히나 선거 참여와 관련된 업무라면, 자기랑 관련된 일이니 자기가 할 의향이 더 좋을 것. 그러면 승낙할 확률이 높아서 생각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0항에는 유사 선거운동본부를 하지 말라는 것.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시행세칙에 관련 조항이 있는 줄. 찾아보니 없었음. 그래서 삭제를 했음.

회: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학생회장님이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로 정책간담회에 참가해보신 적이 있는지?

畢竟: 아니요.

회: 제가 이해를 하기로 2017년에 했었는데 패널과 다르지는 않은지? 총학생회의 패널과는 결이 다르지 않은지?

시: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다지 큰 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나,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패널이라고 말한 것은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를 잘못 말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회: 7항 1조에 관해서, 별도로 등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석한 사람이 개인 및 참여가 되는 것인데, 토론에서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시: 자격이 없는 것인가요?

회: 네 지금까지는 등록으로서 자격을 증명하지 않았음. 행위를 함으로써 자격을 증명하기는 하였는데.

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행위를 하면.

畢竟: 비슷한

보: 선거 참여 개인 및 단체 같은 경우가 사전 등록이 아니라 정간회에 와서 선본도 아니고 선관위디고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건데. 질문 시간을 사전에 협의하는 게 가능한가?

시: 선거참여 개인으로 인지가 되고 주지가 되려면.

회: 사실 관계가 다른 게, 작년에는 선관위에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았고, 36대 선거 과정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정관회에 참여를 하고 자보를 이후 논평을 게시하고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자격의 증빙이 사전에 불가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인 것.

시: 17년에 운영된 사례에서는 정간회 이후에 패널로 인지가 되었는데, 정간회 전에 인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회: 정간회 전에 논평을 내고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

시: 가능하다고 생각. 의욕이 있는 선본이라면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 공개할 것. 그렇기에 정간회 전에 드러내는 것이 가능함.

회: 정간회 전에 한 단체에게 정간회 후에 할 단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 우선권을 받고 싶다면 사전에 하면 되지 않는가?

회: 저는 그 제한은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시: 제한이라기 보다는 능력주의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의지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저는 반대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정간회 이후 의견을 보이려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간회 이후 그런 의지가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회: 정간회 이전에 논평을 발표했다고 특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시: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회: 간담회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시: 질문 우선권이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보십니까?

회: 사전에 정견을 발표한 개인, 단체를 조사하고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마.

시: 만약 이렇게 개정되고 공고가 되면 의지가 있으면 먼저 선관위에 연락을 할 테니 조사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한길: 저도 사회대 학생회장님 의견과 비슷한 것이, 왜 그게 필요한지를 묻는 이유가 말씀 하신

이유가 납득이 안 되어서 라고 생각. 정간회에 참여한 것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선관위가 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냈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열로 가르려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적으로 보이지 않는 듯. 우선권 부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시반 학생회장님의 답변에 대해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함.

시: 질문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권위주의적이라면 단운위가 바로 그러함.

한길: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함. 운영위원은 표결권을 가지고, 참관인은 그러지 않으니.

일치: 저는 시반 학생회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했고, 저도 그게 정간회 때도 오히려 좋은 안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우선적으로 의견을 밝히신 분이 있다면 우선 발언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하시면 이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이전에 참여 의사를 강하게 밝히신 분이 있다면 우선권을 주는 것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함.

한길: 저는 여전히 동의가 어려운 것이, 참여 의사의 강함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다는 기술적 판단 하에서 말씀 하시느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불간으하다고 생각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할 효용이 없다고 생각함.

시: 사전에 신청을 한 선거 참여 개인 및 단체에 한해서만 정간회에서 우선권을 준다는 수정안을 내면 동의를 하실 수 있으신지?

한길: 그래도 동의하기 힘들다고 생각. 시간 차가 얼마나 더 관심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의문. 확인이 된다고 해도 관심이 더 많다고 해서 질문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적인가의 의문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그러면 대기업, 청와대에서 기자실을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길: 저는 그것이 현재 논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 총학은 여러 단체가 패널로 참여하고 많은 의견을 주시고, 참관을 많이 하는데 정간회에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참여 의사와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 사이에서 발언권의 차등을 둘 수 있는지, 그럴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 사전에 발언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당일에 시간이 갑자기 되서 오시는 분들에게 심리적 이유에서라도 드리는 것이 참여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음: 계획 없이 오시는 분들은 정보, 관심 면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냥 오는 것일 수도 있고,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와서 질문 우선을 해서 티키타카가 되고 있으면 참관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잡아가야 하고,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게 민주적 절차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 말씀 해주신 사례는 당일에 갑작스럽게 참여를 했는데 잘 모르는 분의 사례인 듯. 당일에 참

여해도 그 선거와 관련된 지식이 있는 분이 참여할 수도. 당일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발언권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논의가 관심사에 대해 오갈 수 밖에 없기에 말씀하신 가능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 한길반 학생회장님께 질문. 현행 선거참여지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구체화하면, 예컨대 45조 5항에서 나온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이 부분은 왜 정당화됩니까? 아니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한길: 사실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거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정간회에 참여한 이후 의견을 자보 형태로 부착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했고, 정간회라는 자리가 많은 학우 분들이 잘 참여를 안 해서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시: 두 가지 이유로 말씀 해주신 것이, 자보를 붙이는 비용과 일종의 유인이라고 이야기하심.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우선권 부여가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한길반 학생회장님께서는 질문 우선권이 차별이나, 비민주적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10만원이라는 차등이 있지 않은지? 그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평등주의자라고 넘어갔을 텐데. 그러지 않음. 만약 10만 원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유인이라면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닌지.

회: 좀 다른 것이 1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은 참여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타인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님. 그러나 질문 우선권은 타인에게 하나의 페널티가 될 수 있는 것이라서 이는 안 된다고 생각함.

한길: 동의하는 바.

시: 우선 10만원이 다른 사람에게 페널티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됨. 명시적으로 눈에 띄게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이지, 모든 비용에는 기회비용이 있음. 우선권이 페널티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시간 제약이 있다면 그럴 수 있으나 최대도 조율을 한 마당에 질문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질문권이 박탈이 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

한음: 혹시 수정안 발의가 가능한지? 질문 우선권이라는 말이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에게 앞 순서에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서 비민주적으로 느껴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절충안으로 5~10분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 순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부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참여를 했던 분에게도 질문권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고. 질문을 다 받고 중간에 토론 진행에 있어서 1, 2, 3 순서로 질문 시간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거를 수정안으로 발의할까요?

시: 지금 7항 1호를 삭제하는 수정안?

시: 의사진행 발언. 3분 휴회 어떤지?

회: 일단 한음반 말씀을 듣고.

한음: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건 없고, 그러게요.

보: 수정안을 고민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한음: 좀 더 고민해보려고 함. 시반 학생회장님께 질문. 최대 10분으로 생각한 이유는?

20:30 불꽃 퇴장

20:32 불꽃 입장

시: 저는 10분이 맞다고 생각하나, 확실치 않다고 생각해서 적지 않음.

한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5~10분으로 질의 시간을 놔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4조 13항에 최소 5분인데, 아마 최대 10분도 정하겠죠? 그렇게 시간을 정해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는데, 최대 시간을 10분으로 하려면 최소 시간이 없어져도 되는 것이 아닌지?

시: 저는 최소 5분이 없어지는 것과 있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회: 최대 시간을 10분으로 고정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요?

한음: 네. 지금은 최소 5분을 보장받고 선관위와 합의해서 최대 시간을 정하는 것인데, 선관위가 만약에 10분을 정해주면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한 것은 최대 시간을 정할 거면 선관위와의 협의라는 문구를 어떻게 할 지는 모르지만 최대 시간을 추가하면 진행 상에 도움이 될 것이고.

한길: 제가 이런 거에 대해 물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최대 시간 10분으로 하면 질의 시간만 10분인 거고 그거에 수반되는 시간은 따로인 것인지?

꼼: 네 그렇습니다.

시: 사실 그래서 저는 10분은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한길: 산술적 계산 말고 다른 시행세칙에 근거했을 때 시간을 명시한 단위가 있는지?

시: 제가 알기로는 우선권을 총학생회에서는 주는데 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한길: 저는 갑자기 우선권이랑 다른 얘기로 새는 것 같은데, 다른 단위에서도 시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질의나 답변의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생각. 그런데 시간을 정해야 하는 이유가 문지 의문이 듭. 최소 5분이든, 최대 10분이든 그것이 필요한지?

시: 저의 개인적 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진보의 요람이니 최초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길: 경험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질의가 있을 때 시간이 없거나 너무 오래 걸려서 불편함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세칙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38 한음 퇴장

시: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한길반에서 학생회장이 탄핵 당한 적이 있는지? 있는데 왜 관련 조항이 있는지?

한길: 탄핵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결이 다르다고 생각함. 기존 선관위가 발언권을 배분함에 따라 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신설을 하는 이유가?

시: 비유에 원관념과 보조관념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그런데 본질적 동질성은 있는데 부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20:40 한음 입장

한길: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비유 말고 본질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제가 회칙을 많이 다루면서 몇 차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법, 그물은 물고기의 크기를 알고 만드는 것이 아님. 법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없었다는 이유로 시도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회: 두 분의 논의가 엇갈리고 있는 거 같은데, 5분의 질의 시간 보장의 순기능을 설명해주시면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시: 최소 시간의 순기능은, 선관위가 가령 패널과 갈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막말로 패널에게 1초의 질의 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 이것이 순기능임.

불꽃: 질의. 그러면 총학생회칙에서도 시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명시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시: 선거시행세칙은 전학대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음. 아무래도 전학대회이다 보니 엄청 어지간한 거 아니면 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음.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불꽃: 다른 단과대는 왜 명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 다른 단과대의 정보는 알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불꽃: 만약에 실제로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다른 단과대도 이미 신설하지 않았을까 하는 맥락에서 말씀 드린 것. 우리 사회대에서도 굳이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왜 시행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못 느꼈음.

20:45 끔 퇴장

시: 굳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불꽃: 실무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손해라고 생각. 예를 들어 유도리 있게 선관위원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조항이 있으면 악의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 그런 것들을 시행세칙에 근거하기에 악용하기 쉬울 것이고, 시행했을 당일에 있을 것들을 원활히 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

시: 유도리를 남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갈등이 있어서 1초를 부여하는 것도 유도리. 두 번째로 10분으로 쓸데 없는 시간 채우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패널로 등록을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높을 것. 그리고 등록을 한 사람이 지적 수준이나 이런 걸로는 선거에 대한 정보 측면으로는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 있음. 선거 참여 패널은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짓인데 그 경우는 거의 없을 것.

불꽃: 첫 번째의 경우 악용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선관위도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데, 선관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발언을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인지?

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함. 필리버스팅이 안 되도록 최대 시간을 낮추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꽃: 저는 애초에 자의적으로 제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일치: 저는 최소시간은 필요하다고 보고 최대시간은 필요없다고 생각함. 정간회를 관리하는 주체는 선관위. 그리고 위의 항들에서 볼 수 있듯이 선본이나 후보자의 발언권에 대한 제한을 선관위가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고 보이나 그 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발언권도 선관위가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 말은 결국 선관위가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선거참여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발언권 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선거참여지원제도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선관위에서 권력을 더 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함. 그렇기에 최소한의 시간은 정해놓는 것이 발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에. 다만 최대 시간을 정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최대 시간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선관위에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최대 시간을 선관위에서 제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합의를 미리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필리버스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최대 시간은 빼도 된다고 생각함.

회: 의견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소 시간의 설정이 가능하다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다만 정간회에서 최소 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애매할 수 있는 것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인지? 단체에게 부여되는 것인지? 또 14조의 12항을 보시면 임의의 단체가 아니라 각 과/반동아리가 우선적으로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발언 시간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가 그냥 정간회 출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서 발언시간을 애매하게 부여를 하는 것이 지금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 혹시 지금 말씀해주신 기술적 부분이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작동하시는 분이 있는지?

뇌: 저는 그렇게 생각함.

시: 피드백을 수렴해서 다음 주에 다시 보완해서 오겠습니다.

회: 근데 의장으로써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고 싶은 것이, 곧 시험 기간인데 다음 단운위를 언제 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해봐야 할 것.

한길: 저도 일치반 학생회장님 말씀에 일면 동감을 하고, 학생회장님 말씀에도 동감을 해서 기술적 부분에 대한 재고를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 그런데 다음 단운위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이유로 제가 낳은 기술적 부분들은 외면하거나 내지는 선관위의 뜻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함.

한길: 그러면 만약 단운위를 하면 내년 선거부터 작용되는 방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지?

시: 가령 단운위가 다음 주에 열리면 이번 선거에도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회: 그러면 바로 3번으로 넘어갈까요? 논의안건 3번은 중간에 별첨 자료를 올리지 못함. Pdf로 보내주셔서 편집을 하지 못 함. 논의안건 8번부터 할까요? 7번과 내용이 겹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임.

만희: 논의안건 8번 쟁점이 적은 것 같고 중요한 것 같다. 제가 발제를 드리겠다 이제 1번을 보시면 1번은 용어의 정의에서 선거운동원명부를 개정하려 한다 원래는 이름 및 학번만 기재를 하면 된다. 여기에 소속학부 및 과반을 추가. 원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는 자 중에서 회원이 아닌 자가 있어서 무슨 반 또는 학과 출신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게 논의안건 7번과 겹치는 내용. 동훈님이 가져오신 7번에서는 + 선본내 직책까지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하면 될 듯

나머지 세 개를 개정하려고 하는 게, 공동선본 발족식, 공동유세, 공동정책간담회 5일 전 공고. 올해 선거 일정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대로 되면 추천인 서명 받는 기간에 공동선본 발족식 일자 및 장소를 발표해야 한다. 그래서 2일로 줄이고자 한 다 세개 다 일괄적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전자투표는 시간 제한 안 두는 것으로. 그 당면에 진짜 중요한 투표소 개수. 16동에 3개. 너무 많고 요즘 온라인을 더 많이 참여하므로 2개면 충분. 마지막은 표기 상의 문제. 아래 보시면 경고 2개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고 3회 이상이면 말소한다? 같은 말임. 그리고 마지막은 웬지 모르겠는데 큰 따옴표가 있어서 지웠다. 질의를 먼저 주시라.

시: 아무래도 18조 2항에, 18조 3항에 총투표 16시간 이상으로 나와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건 오프라인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보: 아무래도 옛날에 제정되었다보니 전자투표 내용이 없고. 이 내용을 넣으려고 했던 게. 논의안건 5번에. 동훈님의 개정안에서. 4안으로 새로 개정을 하는 게. 선거가 성사된 시간부터 8시간 진행한다는 게 오프라인만이라서. 사실 전자투표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그래서 그렇게 적었다. 질의나 의견을 주십시오

/

시: 투표소 두 개는 어디에 설치할 생각인지?

보: 1.5층에 있는 걸 빼면 되지 않을까. 또 질의나 의견.. 사실 없으시면. 의견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건 제가 가져온 용어의 정의 부분과 논의안건 7번. 저 같은 경우는 이름 및 학번에 소속학과 또는 학생회까지만 했는데. 7번에서는 거기에 플러스로 직책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치: 7번이랑 같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8번에서만 하면 되는지.

보: 사실상 8번이 이상태로 인준이 되면 7번은 자동적으로 부결이 될 것이고.

회: 내용이 겹치기는 하는데, 선거운동명부를 앞에서 정의하면 뒤에서 정의할 필요가 없을 듯. 7번의 내용을 그대로 8번에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음.

보: 7번 보면 8조 3항을 개정하신 것. 여기 설명 보면 어쩌구 저쩌구를 포함한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쓴 곳에 선거운동원명부를 명시하고 있어서.

일치: 7번 밑에 48시간 있음.

보: 일단 8번 첫번째에서 직책 넣을지 말지.

시: 그럼 그냥 논의안건 7번 발제해도 될지. 직책에 대해서만.

보: 어차피 논의를 해도 그 발제를 하게 될 테니 해주시면 되겠다.

시: 정치에 대해서 인사란 인사권자의 의지를 잘 드러내는 행위.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 누가 선본 내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지를 드러내는 것인지. 또 하나의 평가 지표가 되는 것인지. 많을수록 판단 내리기 편하므로.

보: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닌데. 다만 선거운동명부를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대중공고하지 않음. 그러면 무의미한 것 아니냐.

시: 유권자가 요청 했을 때.

보: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공개를 요청 하시면 해도 될 듯?

시: 그렇다면 개인에 있어서 저의 논거가.. 대중적으로는 안 되어도 요청하면 성립되는 것 같다.

회: 저는 사실 선본 내 직책이 너무 포괄적인 정의라서. 그래서 저는 선본장까지만 표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연설회의에도 참여해야 하니 그 정도로 하면 효율적이면서도 목적하신 바를 달성 할 수 있지 않을까?

시: 자주 바뀌나요? 제가 선거를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회: 제가 했던 경험으로는 팀 체제가 엄청 공고한 것이 아닌 것이, 선거 준비 시기에는 공약을 짜면서 팀을 나뉘나, 선거운동 시기에는 실무를 기준으로 팀이 나뉘지기도 하고.

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것을 만들면서 염두해둔 방식대로 후보자가 선본을 굽린다면 업무가 달라진다고 하여 팀이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뭔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있다. 총학 선본 할 때에도 팀이 바뀐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제가 염두해두고 있는 방식

만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제도가 번거로움을 줄 수 있다.

회: 그러면 선거운동본부장만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인지.

시: 그 이상은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 논의안건 8번 정도는 통과를 스무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7번에 대해서도 만약 타당하는 경험이 내려지면 추가 의견발의를 안 하고. 만약 더 필요하다면 추후에 다시 제안할 것. 일단 8번은 동의합니다.

보: 그러면 제3조에 선거운동명부라 함은 선거운동본부장과, 이것을 추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면 될지.

시: 소속된 선거운동본부장과 모든 선거운동원의... 이런 식으로

보: 네네 그렇게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일단은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는. 논의도 할만큼 한 것 같아서. 박수로 인준. 7번을 이어서 합시다. 논의안건 7번으로 넘어가면 8조 3항은 다루지 않고 4항만 다루면 될 듯.

시: 8조 4항은 일수가 적으면... 안건 공고 같은 것도 3일 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수가 적은데 일수를 단위로 하면 헷갈린다. 이게 단학대회가 7시에 시작하면 3일 전 7시인지 자정인지... 이게 일수가 많으면 547일. 피 선거권. 그런 것은 날수가 워낙 길어서 일을 단위로 해야 하지만 이틀이나 삼일은 날을 단위로 하면 그렇다 좀. 48시간으로 바꾸려고 한다. 너무 사소해서. 메인이 된 거를 포기해서 곁다리만 설명을 함.

한길: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시간 단위로... 48시간 너무 좋은 것 같음.

보: 그냥 순전한 궁금증은... 구성이 변경된 경우라 하면. 3항이 통복가 되었으면 팀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람이 추가된 경우인데. 48시간이... 시간 단위로는 좋은 것 같다. 4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을 주시면 되는데. 다들 찬성하시는 것 같아서. 박수로 인준...

보: 지금 남은 게 3안과 5안. 논의안건 3번부터 발제 해주시면 될 듯.

시: 일단... 이걸 사실 읽는 거나 다름 없을 텐데.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평가회의를 하자는 것이다. 2019 사회대 체육대회에 대하여. 평가회의 자체에 대해 감히 단정하건데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9:10 성태 퇴장(비반 학생회장)

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싶다.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와 특별기구에서 해도 좋을 것 같다. 투트랙.

또 설명해야 할 게. 이것보다 말을 잘할 자신은 없다. 또한 이 회의가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부터 진행해야 한다. 주요 당사자 및 관계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었다.

궁극적인 목표를 말씀 안 드림. 내년에 18 19 20학번 후배들이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며 더 기분좋게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에 따라 발의하고자 하오니, 동료 위원의 수고와 비평은 가감 없이 발표해주시라.

별첨은 알반과 시반의 말다툼.. 유감스럽게도 공개 토방에서도 해버렸다. 거기서. 그 점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갠톡을 했으면 나았을텐데. 갠톡을 했으면 다음부터 잘할게요. 하면 된다. 또한 저로서는 섭섭한 부분이. 마치 제가 뭐 갈등 하나 해결하자고 이런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지도 적은 것 같지도 않다. 분명히 썼다시피 체육대회 전반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하고 싶다. 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을 언급 안할 이유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역시 다루자. 전반적인 진행, 거시적인 진행도 그렇고. 이 사안으로 발제를 마치겠다. 구체적이고 테크니컬한 부분은. 발제문이라고 하나. 읽어주시길 부탁.

기획단장 담빈: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개인적으로 어떠한 구조적 결함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지. 좋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무나 구조를 만든 게 기획단 전체라기보다는 제가 책임지는 구조. 실무도 갈등 중재도 제가 담당.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면 개인적인 문제

였을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 문제일 수 있겠는가. 예시가 ↓ 필요하다.

시: 예시를 언급했기 때문에. 박 선생님과 저의 알반 갈등을 예시로 들겠다. 첫번째로 어떠한 구조적 결함이 있었을까에 대한 답변. 사실 평가회의를 하고 싶은 게, 구조적 결함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기는 이상하다. 하지만 발제문에 안 쓴 이유는. 그걸 확답할 수 없기 때문. 질의가 들어온 이상 염두에 둔 구조적 결함 말씀하겠따.

웬만한 스포츠에서는 정신을 위배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리그오브레전드에서도 음성 채팅을 통해서 상대 선수를 비하하면 징계 대상이다. 조항이 있다. 그런 것이 바로 구조이다. 그런 게 없었다고 비판할 생각이 없다. 없었던 게 더 자연스러움. 신뢰가 있고. 속되게 표현해서 미꾸라지 행위에 대해 사전에 조항이 없었다고 해도 자연스럽다고 생각. 그러나 이런 것이 발생 했다고 해도 스포츠 정신에 대한 조항. 자정 노력이 없다면 그 때부터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두번째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혼자 하셨기 때문에 굳이 따져도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혼자만의 문제였다고 하는데. 이견이 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한 것도 구조적 문제이다.

기획단장: 그것은 기획단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학생사회의 구조적 문제. 아무리 일을 나누라고 해도. 제가 일을 나눠드렸는데 처리가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길: 업무분장을 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기획단장: 저희가 일정이 타이트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팀을 짜고 대진을 짜기 위해서는 각 반에서 몇 명이 참여하는지 픽스가 되어야 하는 상황. 그 전 주에 거듭해서 모든 기획단 분들에게 다음주까지 최종 명수를 가져오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전주 회의에는 이 분이 오셨고 다음주에는 다른 분이 오셨는데. 다른 분께서 제대로 공지가 안 되었고 일정이 일주일 밀리게 되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생기다보니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판단은 잘못했을수도 있지만.

시: 맥락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제가 잘못했다.

보: 질의가 있다.

시: 이어서 말하려고 한다. 혼자서 일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 듣고 나니 기획단의 구조적 문제라고 하기에는 거시적이기는 하다. 그런 거시적 문제라고 해서 못 다루는... 그런 거시적 구조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중에 더 방점을 두고 싶은 것은 첫번째이다. 스포츠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는 점도 있지만. 위배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자평이나 자정을 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결함이 있다.

기획단장: 게임에서 처벌이 되는 게 시작 끝까지인지. 전후 맥락까지인지.

시: 일단 뱀픽이라고 해서. 그것도 포함이 된다.

기획단장: 접속하고 있는 도중의 언행은 개입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건. 기획단이 상위기구라 보기에는 애매하다. 저희가 주최를 하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모두가 속해 있는 협회에서 경기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생회원분들 참가를 위해 열어드리고 참가를 해주시는 건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전후 맥락에 대해 기획단이 처벌을 내릴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일치: 지금 전체적인 논의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피드백 회의 내지는 특별기구에서 논의할 사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게 문제가 매끄럽지만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고. 그것에 대한 회의가 내부든 외부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 맞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해명 내지는 문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할지 말지의 여부와 회의 형태 얘기가 있다.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경네 대해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한길반: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될 것 같다. 기획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평가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평가회의에서 무엇을 얘기해야 하냐. 자연스럽

게 제 의사를 밝히자면. 사실 저는 기획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많이 하는 게. 기획단 평가 회의는 기획단과 사회대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게임 진행 제반에 대한 사안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게임 안에서 인성질한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 규정을 마련해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다만 우려되는 지점은 이 안건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톡방을 캡처를 해주시면서, 톡방에서 말씀해주신 분들을 출석요청 해서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게 단운위가 되었을 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능분에서 인준한 사안은 사회대 내에서 어느 정도의 집행의 강제성을 가지는데. 저는 개인에게 그 분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게 강제로 하는 게 맞느냐. 제일 큰 의문. 권위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건설적으로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게임의 제반 사안에 있어 집행 담당한 기획단 내에서, 각 반의 담당자 분들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수합해온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 의견을 낼 부분이 있다면 기획단 내에서 참여하는 게 건설적인 것 같지, 정기 단운위에서 몇 회에 걸쳐 서면 답변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게 공동체적 해결인지 의문을 남기고 싶다.

시: 요청을 강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길: 사법기구철며 끌고 올 수는 없지만. 단과대 운영위원회라는 곳은 대표자들이 있는 곳.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사전에 출석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걸 의결하게 되는 것. 그 의결에 대한 책임을 대표자들도 가지게 되는 것. 그 분에게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셨는지 여기까지.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분이 출석 요청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과대 운영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고. 출석 요청을 하는 것 자체도 공동체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

시: 저는 일단. 발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게 첫 번째. 발언권의 우선순위 차이가 있겠으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운영세칙에서 말한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등해질 것 같다. 그리고 출석을 요청해서 의사와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듣는 게 공동체적 해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종류의 해결이어도 종류를 막론하고 당사자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 무조건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 당사자의 말을 들어야 판단이 선다. 그렇습니다.

한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분의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그 분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발언이 강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출석하거나 발언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의결을 하면 그 분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 요청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담빈: 요청이라는 말이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요청한 걸, 권위라는 맥락을 무시할 수 있는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루된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연락을 주셨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고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단운위라는 게 이름도 거창해보이고 실제로도 의미있는 장소이고. 폐쇄적이기도 하다. 권위 없게 요청 한다고 해서 정말 요청이 될지 잘 모르겠다.

시: 교장선생님의 예시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교장이 학생에게 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 있다. 단운위가 학우에게 뭘 할 수 있는지가 의문. 그 경우에 대해 교장의 요청이 강제성이 있다고 하여 단운위의 요청이 강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이것에 대해 간통으로 여쭤봤는데 한 세 분인가, 시반에서도 두 명인가가 물어봤다. 내가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은데. 비합리적인 게 아닌 이상은 그 사람들은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한길: 그 분들이 안 나올거라 생각한다면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러면 기획단 회의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시: 기획단 회의에는 출석하실 분이 단운위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

한길: 그렇게 생각함

기획단장: 그러면 왜 기획단 내부 논의 하면 안 되느냐. 왜 상위기구에서 해야 하느냐.

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제문에 써 있는데. 완벽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모순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아울러 태생적 한계 중에는 자기객관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평가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기획단장: 불러서 말씀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게 가장 당사자를 불러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건데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기획단 외부에서 발생한 일을 평가하는 회의라면 외부기구가

투입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시: 기본적으로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체육대회 기획 전반에 대해서도 하고 싶다는 것인데. 저는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덜어졌는데, 왜 제가 아닌 다른 분들께서 이 사안을 좋아하시는지 의문.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와 더불어 이게 기획단 내부는 아니더라도 체육대회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기획단원이 결코 외부를 바라보듯이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함. 평가회의 취지에 대해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기획단장: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가장 찬성하는 피드백 방식은 제가 작성해서 이후에 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 왜냐면 이것은 시선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피드백 회의에서 하게 될 많은 말들에 비해 외부적 피드백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오만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시: 질문 있는데,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구조적 결함을 물어보신 것이 정말 몰라서 물어보신 것?

기획단장: 네.

시: 그러면 혼자서 피드백을 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기획단장: 저와 구조에 대한 생각이 다르신 듯. 제도적 문제는 있을 수 있음. 풋살, 축구 등 룰은 거의 건드리지 못 함. 기획단 분들께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스포츠, 게임을 저는 잘 알지 못 했고, 그래서 계속 물어봤음에도 결점이 생기고 제가 놓친 것 중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것이 구조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음. 피드백을 혼자 잘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공개를 하고 재 피드백을 받아도 될 것을 단운위의 이름으로 참석을 요청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것이 무슨 효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논의를 더 편하게 하자면, 내부 회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시면 저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함.

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이는 논외이고. 혹시 평가회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회: 기획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원론적 부정보다는 실효성에 대한 종합적, 현실적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서 평가회의든지 평가를 남기는 방식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화답은 어떻게 하셨는지?

기획단장: 저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시: 그 분들에게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청을 하셨는지?

기획단장: 반 차원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치: 반 차원에서는 질의를 받으신건지?

시: 저는 반 회장이 사과했다고 해서 밭을 생각은 없음. 알반 학생회장님은 전혀 당사자가 아님. 그 분은 저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표자로서 사과를 하는 것인데, 알반 일반 학우는 무슨 죄인지?

일치: 지금 사실 관계에 대한 것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이 발의안에 써 있는 본인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온전할 수 없다는 점과 연관된다고 생각함. 당연히 회의는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함.

기획단장: 물론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제가 피드백을 적고 사후에 의견을 받는 것이 크게 많이 다를지? 기획단 분들과 공유를 하고, 필요하다면 갈등 당사자 분들께도 공개를 해서 첨언하고픈 부분을 물으면 된다고 생각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둘 간의 화해가 있었나 없었나는 기획단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운 것을 개인적으로 화해를 했나 안 했나는 둘 간의 싸움이지 기획단이 개입해서 화해를 시키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

일치: 교차검증이 부족하다고 생각.

기획단장: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음. 제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고 일적인 면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심하지 않나 생각함.

시: 기획단장님이라면 체육대회 진행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데, 혹시 시 알 를 결승전에 있었던 갈등보다 더 큰 것이 있었는지?

기획단장: 아니요.

시: 사후에 이에 대해 확인을 할 사람이 없으신 분이 혼자 피드백을 작성한다는 것.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평가회의를 하지 말자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함.

기획단장: 용인이라는 부분은 제 의견을 얘기를 하자면 놓쳤던 것이 맞고, 그리고 의견을 수정한 것.

시: 사실 방금도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 없음. 그래서 저는 팩트 체크 차원에서도, 괜히 이러는 것이 아님.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정말 많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많아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출석 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거에 대해 제가 옛을 맥이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출석 요청을 안 했을 것. 저는 출석 요청은 오히려 그 분에게 이롭다고 생각함.

한길: 의사진행발언. 휴회를 했으면 합니다.

시: 재청합니다. 5분 정도를 제안합니다.

21:57 휴회

22:10 속개, 비반 퇴장

회: 저는 발언을 하자면 저희가 평가회의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가 합의가 되어야 형식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듯. 여기서 사실 관계의 규명이라는 것이, 저는 더 이상 추가적 자료를 확보할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텐데. 직접 당사자 분이 오셔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군요.

시: 지금 당장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례가 방금 나오기도 했고.

회: 저는 선례의 교차검증은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기획단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의 문제인 듯.

시: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가치판단의 측면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맞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먼저 그러한 제안을 하지 않았는지? 기획단에서? 이에 대해서는 기획단의 소관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주실 것 같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양심적으로 말씀드리건대 게임 내부였다고 우길 마음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게임 내 외부를 나누는 것이 힘들기 때문. 그럼에도 외부라고만 단정지을 수 없는 이유는 결승 도중에도 크고 작은 행위가 있었고, 결승 경기가 끝난 직후에 1시간인가 2시간도 안 지난 다음에 해당 발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사회대 체육대회가 다 함께 즐기고 즐겁게 친목을 교류하는 사업인데, 이게 설령 게임 외부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장이 발생했음에도 기획단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획단에 최종적 목표가 다 함께 즐기는 것이었다면 설령 이것이 게임 외부의 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해도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전과 배치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획단장: 방금 얘기는 되게 좋은 얘기였음. 책임이 아니어도 관여를 할 수 있을 것. 그런 의미에서 게임 전, 후든 체육대회 참여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에 문제가 생기는 이슈라면 피드백을 다뤄야 한다는 것은 일리 있다고 생각. 그러면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방향 또한 만족감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일 텐데, 그렇다면 방식에 대해 고민을 잘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은 참석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단운위에서 참석요구서가 오고 의견 조회서를 주는 것은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이렇게 큰 일처럼 보이는 게 되게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단운위 회의에서 오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더 큰 일로 보일테고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 단운위에서 하는 것이 기획단에서 하는 것보다 이점이 아주 크지 않다면 이 방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시: 그 분들은 그 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시기를 원치 않으시는건지?

기획단장: 그 분들과 개인적 친분이 없어 확연한 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 분들의 걱정을 들었을 때는 그닥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 그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분들의 입장을 개인적으로 듣고 싶기는 하나 개인적인 자유임.

한길: 의사진행발언. 일치반 학생회장님 언제까지 계셔야 하는지?

일치: 이번 안건까지 해야 할 듯.

한길: 저도 뒤에 회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논의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어떤지?

회: 뒤 안건을 두 분 가시기 전까지 다루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 그래서 논의안건 3을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일치: 저는 30분에는 나가야 할 듯.

회: 두 분이 나가시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

시: 의사진행발언. 선택 표결을 3가지 안으로 하고, 3가지 안 중에 결선 표결을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운영위/특별기구/기획단 내부 평가회의. 내부 회의는 단서를 달고 싶은데, 의장은 기획단원이 아닌 자, 최소한 기획단장이 아닌 자. 그리고 출석 요청을 정중하게 드리는 것.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표결을 하고 과반이 없을 경우에는 결선 표결을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일치: 아예 안 하는 것도 두어야 하지 않은지?

기획단장: 그것이 저의 첫 의견이었는데. 의견을 듣고 좀 수정해서 카톡으로 진행하는 안이 어떤지?

회: 내부회의를 카톡 회의로 하겠다는 말씀.

한길: 새로 발의하신 것에 질의가 있는데, 단장이 의장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나, 왜 그렇게 발의를 하신 것인지?

시: 본인이 의지가 없어서.

기획단장: 초기에는 그랬으나 의사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시: 여전히 카톡으로 하고, 혼자서 한 다음에 피드백 정도만 타인에게 받는 것을 최선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의지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기획단장: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의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의장이 그냥 진행만 하시는 분인가요?

시: 여기에서의 의장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단장: 각 회의에서의 의장은 가장 많은 것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하실 분이 계신지,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들어서요.

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함. 본인의 지식량과 두 번째로 알고 계신 분의 차이가 꽤 클지?

기획단장: 두 번째로 알고 계신 분이 만희 님인 것 같은데, 카톡 방에 들어가 계시지 않으셔서 그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모두 수합이 가능할지 모르겠고, 자료가 수합된다고 해도 어떠한 개인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3자로서 회의에 많은 자료를 읽고 오실지 하는 현실적 의문이 듭니다.

시: 첫째는 읽고 계산~~~

부학생회장님은 의지가 있는지.

보: 단번에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게. 만약 일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평가회의를 하기로 결정이 되고... 앞서 설명해주셨던. 오늘 좀 많이 핵심이 되었던 사건 이외에 다른 갈등이 있었다. 알반 시반 사건을 알기 위해서 카톡방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쉽지 않을 것 같다. 단순히 기획단에서만 오간 톡방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가감없이 알기 위해서는 갠톡 자료도 필요하고. 사과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인지해야. 팩트 하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쉽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시: 기획단장님께서는 그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단장: 단운위 소집하는 형태에서는 하고 싶지 않다. 원론적인 성격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그 이외라면 사실 확답 드리기 힘든 게 이 일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으로서 삶이 있다. 아주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복수전공 하는 학과가 실무량이 많다. 실질적 시간이 날지를 모르겠다. 아직 파악하지 않은 양상들도 특히 시반과 알반 사이의 대화들이 전해들은 게 대부분. 그것을 다 자료 요청 드려서 다 읽어보고. 를의 진행도 잘 모르고. 그 경기를 다시 봐야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기로 하고. 저 자신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는 사실을 많이 느꼈다. 열심히 해보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또한 다같이 모여서 시간이 맞아 진행할 수 있는지. 카톡으로 하자고 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기획단 회의 아시겠지만 이것보다 기획단원들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 네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런데 기획단에서 이런이런 일로 평가회의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할지 고민. 그것 보다야.. 장단이 있겠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랑 카톡으로 얘기하는 거랑. 현실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한길: 정리를 하자면 새로운 선택지의 단서 조항이 의장을 기획단장이 아닌 사람이 하고, 출석 요청을 하는 것. 첫 번째에 대해 얘기를 하는 중이었음.

기획단장: 솔직히 말해서 의장을 제가 아니라 누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 거 같은 게, 일단 제가 안 하는 게 좋은 이유가 기대하시는 것보다 의욕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고, 완전히 외부자도 아님. 그런데 이것에 저보다 의욕이 있으면서 시간이 많으면서 더 많이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길: 저는 그래서 기획단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당위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 가능성을 타진 했을 때 힘들면 카톡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함..

시: 그렇게 생각하면 사회대 학생회가 3번째로 큰 사업을 오프라인 평가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 이 아닌가?

기획단장: 오프라인 회의가 좋아서 합시다 하고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할 수 있는 방안 내에서 하는 것이 열심히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기에 그렇게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없는 무리한 안을 잡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다.

보: 단서 조항을 달아서, 오프라인 회의를 시도해보고 안 되면 온라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의장은 고민이 더 필요할 듯.

시: 오프라인 회의가 여의치 않다는 것은 사실인데, 카톡 회의가 잘 안 되는 것은 분명함.

기획단장: 저는 카톡 회의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시간을 정해서 같이 카톡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제가 파일을 올린 뒤에 읽고 최소한 코멘트라도 달아달라고 하는 식이 오히려 오프라인에 모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그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교차검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기획단장: 그냥 갈등 당사자에게 제가 개인적 연락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지. 지금 피드백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당사자와 연락이 가능하고, 그 분과도 연락을 몇 번 했기에 성명이 날라오는 것보다는 제가 간통으로 여쭤보고 강압적으로 사실만을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싶지 않고, 의견을 듣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검증하는 식으로만 해도 아까 문제가 된 사과도 그러함.

22:38 일치 퇴장

보: 의사진행발언. 3개로 선택 표결하고, 다만 3번째 단서 조항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획단장님이 말씀하신 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한길: 동의합니다.

회: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건지? 그러면 선택 표결을 하면 될지? 4개 중에서 선택 표결해주시면 됩니다.

운영위

특별기구 시 비

기획단 내부 회 봐 불꽃 한길

기권 한음 꼴

그러면 결선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특별기구 시

기획단 내부 회 봐 꼴 불꽃 한길

기권 한음 비

표결 결과로 기획단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논의안건 3번은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22:44 폐회